

# 관료 정은보 vs 내부 3人... '지분 53%' 기재부 입김 변수

## 차기 기업은행장 하마평

정통경제관료 정은보 유력 거론  
김도진 등 3연속 내부출신 발탁에  
임상현·김영규·시석중도 몰방

올해 말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차기 행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외부출신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내부출신인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 시석중 IBK자산운용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이어갈 수장으로 내부출신과 외부출신 인사를 놓고 고민 중이다.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법에 따라 별도의 행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관료출신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 수석대표가 거론된다.

정 수석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관과 차관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 겸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정통경제관료다. 지난 9월부터 맡고 있는 한



정은보 (1961)	임상현(1960)	김영규(1960)	시석중(1961)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기업은행 전무이사 ·수석부행장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2013.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6.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위원장 2019.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2013. 기업은행 경영전략본부 부행장 2014. 기업은행 경영지원본부 부행장 2016.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2017. 기업은행 전무이사 수석 부행장	2015. 기업은행 IB그룹 부행장 2016. 제이서해안고속도로 대표이사 2017.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2015. 기업은행 마케팅본부 부행장 2017.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대사는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다.

정 수석대표는 수출입은행장에 방문 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탁되면서 더 힘을 싣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줄 관료출신을 기용한 것처럼 기업은행도 관료출신 행장이 임명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업은행 지분 53.24%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만큼 기재부 출신의 정 수석대표가 차기 행장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은행은 세 번 연속 내부출신인 행장자리를 이어 받았다는 점에서 내부인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2010년 조준희 전 행장 이후 권선주 전 행장, 김도진 현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승진이 이뤄졌다.

내부출신 후보로는 임상현 기업은행 전무이사과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 시석중 IBK자산운용 사장이 몰방에 오르내린다.

임 전무이사과 김 사장은 승진 서열

로 보면 유력후보 1,2위다.

임 전무이사는 서울 노원역 지점장, 미국 뉴욕지점장, 외환사업부장, 퇴직연금부장, 충청지역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IBK저축은행 대표로 지내다 복귀한 임 전무는 약 34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위, 아래로부터 신임이 두텁다는 평이 나온다.

김영규 사장은 남동공단지점장, 인천지역본부장, 기업고객 본부장, IBK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한 뒤 IBK투자증권 대표로 선임됐다.

그러나 내부출신인 권선주 전 행장과 김도진 현 행장이 내부 서열을 뛰어넘어 임명될 바 있어 시석중 사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사장은 기업고객부장 겸 인천지역본부장, 마케팅 본부장, 마케팅 그룹장을 거쳐 IBK자산운용 대표로 선임됐다. 시 사장은 현 김 행장 내정 당시 막강한 경쟁후보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7일까지다. 금융위는 신임 기업은행장을 12월 중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이 6일 시화공단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품 전문업체인 신양금속공업을 방문해 이장희 이사와 함께 생산설비를 돌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있다. /신한은행

## 진옥동 신한은행장 산업공단 현장찾아 고객중심 소통행보

신한은행은 6일 진옥동 행장이 인천·경기지역 산업공단 내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세미나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원제 엠베서더 인천 호텔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진 행장은 남동·반월·시화공단 및 안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투자자산전략부 한범호 연구원의 '희소해진 성장과 패러다임 변화' 강연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진 행장은 "힘든 환경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동을 느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진 행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서울·경기지역 조찬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의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체감경기와 금융 관련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고객중심 경영에 힘쓰고 있다. /안병미기자

## 상 복 터진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대한민국 봉사 대상'서 3관왕

신한카드는 '2019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봉사 대상'과 '국회 정무위원장상'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눔 봉사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단체

·기관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11회를 맞이해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임 사장이 개인 수상자로 참석했다. 특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인상은 수상자 중 12명에게만 수상되는 상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과 신한카드의 '3초 경영'을 기반으로



시상식이 열린 KBS아트홀에서 김성재 한국유엔봉사단 총재(앞줄 왼쪽부터),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안현식 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수익'을 넘어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와 함께하는 '초협력'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하나금융그룹 '오픈 API 플랫폼' 본격가동

# 은행 등 6개 계열사, 생활금융플랫폼 가속도

하나금융그룹이 6개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통합 오픈 API 플랫폼에는 그룹내 KB EB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생명·하나저축은행 등 6개 관계사와 그룹 공동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나멤버스가 모두 참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ICT 전문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한 '오픈 API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고객 채널을 보유한 모든 그룹 내 관계사가 동시에 오픈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것은 국내 금융권 최하다. 오픈 소스를 활용해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것도 이례적인 최초의 사례라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오픈 API 플랫폼 출시를 기점으로 향후 네 가지 방향성을 갖고 그룹 전체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룹 관계사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룹 공통서비스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그 동안 개별 관계사가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각각 서비스를 제

공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이 지향하는 '원 컴퍼니(One Company)' 전략을 디지털 채널 부문에서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의 효과적인 제휴를 통해 손님과 금융 서비스의 접점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전서비스를 여행 플랫폼과 연계하면,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손님이 별도의 은행 방문 및 은행 앱을 구동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환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손님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금융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외부의 다양한 생활 콘텐츠를 기존의 금융플랫폼에 접목시켜, 기능 위주의 금융서비스를 생활금융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방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현존하는 금융 콘텐츠들은 대부분 손님들이 잔고 조회, 이체 등 특정 목적만 수행한 후 바로 플랫폼을 빠져 나오게 되는 목적지향형으로 서비스 간의 두드러진 차별성이 없다"며 "향후 헬스케어, 여행,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 밀접형 콘텐츠를 확보해 이들을 금융플랫폼 내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면 경쟁력 있는 생활 금융플랫폼으로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넷째로 대내외 데이터 유통 채널로 오픈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는 API로 유통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중요한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진다.

API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인증된 제휴처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인데, 하나금융그룹은 오픈 플랫폼이 향후 데이터 사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민영기자